

# 주간기도정보

2024. 4. 9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라”

#### 4.10총선, ‘기독교계 참여로 정치 개혁하자’

‘기독교 정치 참여 플랫폼’, 부정선거 방지 대책 제안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 전문가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책과 공정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을 위해 다양한 제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독교 청년 단체인 ‘행동하는 크리스천’(행크)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른 투표를 돕기 위해 기독교 정치 참여 플랫폼 VFC(Vote for Christ) 프로젝트를 개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망이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에 취약하며, 각종 선거 관련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돼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부정선거 없는 4.10총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공개적으로 선관위에 요구했다.

행크는 플랫폼 VFC(voteforchrist.kr)에서 254개 지역구의 출마 후보에 대한 프로필 정보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주요 법안 발의 이력이나 후보자 동향 AI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또 구체적으로 해당 후보의 시민단체 활동 내용과 함께 기독교 5대 악법으로 분류되어 온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혁명 ▲성경적 가족의 해체 ▲낙태나 인락사 등의 생명파괴 ▲표현과 신앙의 자유 억압 ▲부모 친권 침해 등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는지 여부를 VFC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기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4.10총선을 앞두고 몇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완전 차단을 위해 선관위와 대법원에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수기총이 요구한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으로는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 인쇄,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투표지 분류기 보안강화,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등이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22대 총선을 ‘정치개혁’으로 만들자’는 논평을 통해, 이번 제22대 총선이 우리 국가의 명운을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이번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생각도 남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회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주권 행사를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 흔들리는 국회를 혁파하기 위해 ▲잘못된 지도자나 자격 없는 사람을 걸러내고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정당은 선택하지 않으며, ▲말썽의 소지 있는 사전투표보다 본 선거에 참여해 국민들의 정확한 표심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역대상 29:1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디모데전서 2:1-2)**

하나님, 대한민국 총선을 앞두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이견으로 요동하지 않도록 모든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을 주목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건국된 이 나라에 정치적 이익을 따라 성경적 가치관을 허무는 후보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진리의 기준에 따른 분별력으로 선거에 동참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총선을 이용해 거짓과 속임을 일삼으며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경건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라”

#### ‘한국행 하다 잡히면 복송·총살’ 공안 경고에 탈북민들 불안 호소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최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深陽)시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현지 공안으로부터 “한국행을 하다 잡히면 복송되고, 복송되면 총살”이라는 경고성 전화를 받아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데일리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선양시의 일부 공안들이 지난달 중순부터 무시무시한 단어를 써가면서 탈북민들에게 한국행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이 낙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중국 공안은 담당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해 별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한국에 가다 잡히면 이유 불문하고 복송되고, 복송되면 총살이니 조용히 살라’는 말을 하면서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선양시에 사는 한 탈북민은 공안의 전화를 받아 “한국에 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 떠나지 말라. 조용히 집에 있으면 잡힐 일도 없고 복송될 일이 없지만, 한국에 가다 잡히면 바로 복송이다. 생각해서 말해주는 것이니 내가 한 말을 흘려듣지 말고 잘 새겨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또 과거에 한국행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탈북민도 지난달 말 공안으로부터 “지난번에는 운 좋게 풀려났으나 이제 그런 운은 다시 없으며 복송되면 총살이니 밖에 나다니도 말고 한국에 갈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 탈북민은 지난해 한국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가 공안에 붙잡혀 6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풀려난 이후에는 전화벨 소리나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탈북민들에게 복송과 총살은 가장 두려운 말”이라며 “공안의 전화 내용은 현재 중국 내 탈북민들 사이에 퍼져 공포심이 확산하고 있고 복송에 대한 두려움도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면서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던 일부 탈북민들은 한국행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북한 일부 농촌 지역의 식량난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아질 가망이 없는 형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영광군에서는 지난달 하순 일가족 4명이 병으로 고생하다 한 달 전부터는 식량마저 다 떨어져 해결할 방법이 없자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춘궁기(보릿고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국에서 가축의 먹이로 쓰일 만큼 질 낮은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입된 쌀은 곰팡이가 나거나 흙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어 중국 시장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최하급 쌀이라고 한다(출처: 데일리NK 종합).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이사야 25:6,8)**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한복음 14:1-2)**

하나님, 북한에 있으면 극심한 굶주림으로 살길을 잃게 되고 가난과 폭군의 억압을 피해 남한으로 가다 붙잡히면 총살당하게 되는 이 비극의 딜레마에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중국 공안의 경고로 극한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탈북자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시고 이때를 은혜의 기회로 삼는 교회와 선교사들의 섬김을 통해 복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안전한 터가 되신 주를 믿고 시인하는 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덜어주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굶주린 주민을 돌보지 않는 북한 당국을 책망하사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이들에게 속히 식량이 공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옵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그 날!’...다음세대 훈련학교 ‘뉴스쿨’ 개강  
십자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 내용으로 3개월간 진행



“복음의 축복, 다음세대를 세우라!” 수많은 죄와 세상에 노출되어 무너진 다음세대를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7기 뉴스쿨’(N.E.W. School) 섬김이 모임이 지난 3월 30일 산본양문교회 부곡예배당에서 진행됐다.

순회선교단 다음세대팀이 주관하는 뉴스쿨은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교 개강을 앞두고 섬김이 21명이 모여 기대감을 나누고 메시지를 통해 다음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가졌다.

메시지를 전한 박연희 선교사는 “우리의 다음세대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도전은 만만치 않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 복판에서 온갖 죄에 시달리며 방황하고 있다”며 “세상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많은 곳에서 자녀들에게 미혹의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에 노출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다음세대를 회복하는 일은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사사기 5장으로 메시지를 전한 그는 부모와 교사의 기도가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세대의 부흥에 대해 “이들의 회복은 곧 가정과 교회, 열방의 회복과 부흥”이라며 “기도를 통해 훈련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최고령 섬김이로 참석한 홍정숙(97) 권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보내주셨다”며 “아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팀은 다음세대를 위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은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학부모들과 함께 느헤미야52 기도 정보의 제3권 '복음의 축복, 다음세대를 세우라!' 책으로 기도하는 온라인 줌 기도 모임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한 부모들은 '낙태, 성 착취, 굶주림, 자살, 중독 등' 열방과 한국의 다음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주제들로 기도하며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아이들을 (뉴스쿨에) 보내는 것만 생각했는데 함께 복음 앞에 세워주시는 시간이 되었다"며 "자녀가 미디어와 가깝게 지내도 이것이 믿음으로 싸워야 할 일인지 몰랐다"며 "기도로 무를 꿰겠다"고 다짐한 부모들도 있었다.

이번 학교에 참여하는 한 훈련생은 면접을 통해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를 욕하고, 동생을 괴롭히면 안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원동기를 밝혔다.

4월 6일 시작되는 뉴스쿨은 '유일한 해답, 복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복음, 마음, 죄, 십자가, 믿음의 삶' 등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마다 8주간 복음을 듣고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3박 4일간의 국내 아웃리치로 마무리된다(출처: 기도24:365본부 종합).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3:19-20,26)**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느헤미야 4:14)**

하나님, 다음세대의 회복과 부흥은 오직 복음과 기도로만 가능함을 깨닫고 복음 앞에 달려온 학생들과 이 일에 섬김을 자청한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리가 삶에서 부딪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생명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와 교사들이 전쟁의 승리가 기도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비밀,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된 믿음의 다음세대가 일어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